

곡성, 투자유치 지원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장 신·증설,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관외 완제품 수송 시 발생비용 일부 지원 등 일자리 창출·지방소멸대응 위기 극복 기대

곡성군이 투자유치 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다양한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역 내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지원체도를 신설 및 정비하고 있다.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당초 지역 내 농공단지에만 입주하는 기업에서 농공단지 외 개별입지로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우수·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비를 최대 4억 원, 시설보조금 최대 5억 원, 코로나 상수도 인입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외로 완제품 수송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기업 내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 및 전입 근로자 세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투자유치 시행계획 추진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순천, 호·영남 상생놀이마당 공연 개최 낙안읍서 오는 10일 전통문화예술 교류공연

순천시시는 오는 10일 제9회 영·호남 전통문화예술 교류공연인 '동·서화합 상생놀이마당' 공연을 낙안읍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남 순천놀이패 두엄자리와 경북 구미놀이패 말뚝이 함께 진행하는 전통문화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놀이패 두엄자리는 사물놀이, 진도북놀이, 고성 오광대 제밀 주과장 등의 공연을, 구미놀이패 말뚝이는 금회복춤, 하회별신굿, 태평소, 구미 무용농악 등의 공연을 펼친다. 또한 두 공연팀이 협력하여 만든 합동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합동공연은 호남과 영남의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놀이패 두엄자리(대표 양명진)는 1987년 창단하여 30년 이상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예술단체이다. 두엄은 퇴비를 의미하는 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과 문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미놀이패 말뚝이(대표 홍순애)는 1986년 창단하여 영남 지역의 전통예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예술단체이다. '말뚝'은 흔들림 없이 굳게 박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영남의 정신과 문화를 굳건히 지키고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광양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 및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지원하는 용자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송명중 농업지원과장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학장사 씨름대회' 개최

오늘부터 4일간 총 45개 팀 349명 참가

구례군은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일간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구례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대학부 17개 팀 209명, 여자부 19개 팀 116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모래판 위에서 뽐낼 예정이다. 대학장사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치러지며, 개인전은 7체급(명장, 소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으로 구분하여 치러진다. 여자장사 대회는 1부(전문체육) 2체급(대학, 국화), 2부(생활체육) 3체급(대학, 국화, 무궁화)으로 구분하여 장사를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는 체급

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출전하여 여자천하장사를 선발한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을 방문한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선수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MBCSPORTS+ 채널 및 유튜브(더 씨름Liv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대회 기간 중 매일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냉장고, 자전거, 성인용 보행기, 예초기, 쌀 10kg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여자씨름의 발상지인 구례군은 전국 최초의 여자씨름단인 구례군청씨름단을 창단·운영하고 있으며, 여



자씨름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15년째 여자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 다음달 8일 개장

8월 27일까지 개장... 편의·안전시설 정비

보성군은 오는 7월 8일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8월 27일까지다. 많은 피서객의 사랑을 받는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는 맑은 바닷물과 소나무 숲, 은빛 모래 등을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울포해수욕장 센터를 비롯해 회천수산물위판장·보성비봉공룡공원·비봉마리나·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갖춰져 있다. 보성의 대표 관광지

인 녹차밭과 붓재, 한국차박물관 등 관광 명소도 인접해 있다. 보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 센터는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다. 아쿠아토닉·놀이방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해수와 녹차를 만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며 "쾌적한 휴양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시 시설 점검, 방역 활동으로 피서객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동 기자

순천대박물관,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 순항

심예성 작가 '민화홀릭'展 순회 전시... 오는 26일 ~내달 7일까지 순천대박물관 전시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을 통해 민화 화가 심예성 작가의 전시 '민화홀릭'전을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목포대-전남대-순천대 박물관에서 순회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대·목포대·전남대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순회전시이다. 광주·전남 작가 10명을 선정하여

개인작품전을 3개의 대학박물관에서 개최, 총 30회의 순회전시를 진행한다. 심예성 작가는 10명의 작가 중 유일한 민화 화가이다. 민화는 민간에서 일상생활 양식이나 관습 증 민중적인 내용을 그린 그림으로 민화를 통해 당시 민중들이 살았던 환경,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 생활속속, 힘겨운 삶을 이겨내는 의식과 멋을 엿볼 수 있다. 민화 작가이자 시각디자이너인 심예성 작가의 작품들은 고전적인 민

화 형식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내 더욱 화려한 색채와 풍성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심예성 작가의 '민화홀릭'전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목포대학교박물관(5.29~6.9), 전남대학교박물관(6.13~6.22), 순천대학교박물관(6.26~7.7)에서 순차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대박물관(061-450-2933), 전남대박물관(062-530-3583), 순천대박물관(061-750-50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특교세 4000만원 확보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초기 정착 유도과 정책 개선 반영을 위해 실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계획을 알렸다. 특히, 광양시는 지역경제 현황 분석, 광양시 관광 소셜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상위 24개에 포함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용신 정보통신과장은 "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